

무더위도 비껴 가는 거문오름 용암길 ‘인기’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14일 개막...18일까지
풍혈이 뿜어내는 시원한 바람에 탐방객들 감탄
해설사가 전하는 꽃자왈의 위로까지 신비 가득

“와~ 시원한 숲 냄새가 나요. 이런 게 풍혈이구나.”

1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 일 년에 단 5일, 거문오름 트레킹 기간에만 공개되는 ‘용암길’ 코스에는 수십 명의 탐방객들이 몰렸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약 6km 코스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 탐방이 가능하다.

이날 트레킹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 속에 진행됐으며,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며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탐방객들은 거문오름 곳곳을 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해설사에 게 식물과 숲에 대해 질문하는 등 탐방을 만끽했다. 자율 탐방에 나선 이들도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자

중도 합류하기도 했다.

제주살이 2년 차를 맞은 이선익(77)씨는 “이사를 오면서 제주를 공부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문오름처럼 큰 오름은 처음 왔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좋는데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까지 더해져 금금한 게 더 많아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용암길 코스 곳곳에서 마주하는 용암 함몰구에서는 시원한 풍혈이 뿜어져 나와 탐방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용암 함몰구는 용암동굴 천장이 무너져 생긴 깊은 구덩이 지형을 이룬다. 풍혈은 땅속이나 바위틈으로 나오는 바람구멍을 말한다.

고희정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용암 함몰구의 온도는 연중 14~17℃로 유지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과 열대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식생이 형성됐다”며 “또 거문오



14일 열린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에서 용암길 코스를 걷고 있는 탐방객들. 강희만기자

름에는 식나무 최대 군락지가 형성돼 있어 열매가 열리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가족여행을 온 조모(50대)씨는 “거문오름은 길이 평평하고 풍혈 때문에 정말 시원하다”며 “원래 산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산행은 만족스럽게 기억될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탐방을 마무리하며 고 해설사는 꽃자왈이 품은 생명력과 위로의 때

시지도 함께 전했다. “흙이 부족해 나무와 돌이 서로 의지하는 곳이 꽃자왈이다. 하지만 나무가 돌을 감쌀 수 없을 때는 스스로의 뿌리를 크고 굵게 만들어 지탱하는데, 그 뿌리를 ‘판근’이라고 한다”며 “여러분도 때로는 타인에게 의지하고, 또 의지할 곳이 되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판근을 기르시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소중함 알려 뿌듯”

어린이 해설사들 맹활약
동행 해설에 체험부스도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알리고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간 ‘2026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장에서 누구보다 바쁜 이들이 있었다.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들이었다.

파란색 모자와 갈옷 조끼를 입은 어린이해설사들은 거문오름 탐방에 나선 탐방객들과 동행해 거문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해설에 나서기도 하고, 탐방객들에게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퀴즈를 내고 맞추면 선물을

주는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탐방객에게 전한 선물인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공예재료로 재활용해 만든 세계자연유산·유네스코·성산일출봉·한라산과 거문오름을 모형으로 만든 로고도 어린이해설사들이 직접 만들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는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전달하고 미래의 세계자연유산을 이끌 여걸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9기까지 수료했는데, 매년 30여 명의 어린이해설사를 양성해 활동하고 있다.

‘거문오름 트레킹’이 열린 17일 거문오름 행사장에서 만난 어린이해



거문오름 트레킹'에서 탐방객과 동행해 거문오름에 대해 해설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 세계자연유산 어린이해설사들. 강희만기자

설사 김준엽(구좌중앙초 5학년) 군은 “저도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린이해설사 과정으로 3개월간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배우고 유산을 디카시로 쓰는 시간 등을 통해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린이해설사들이 많은데

보통 세계자연유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거문오름 트레킹에서 태극길 탐방에 나선 10명과 함께 직접 동행해 해설을 했는데 저를 통해 자연유산의 의미를 알게되는 모습에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유가에도 쌀 기부 활발... 전년 比 6% 증가

2개월간 2만 2775kg 모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푸드뱅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2026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캠페인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쌀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각계 각층으로 부터 쌀 21t을 기부 받는 걸 목표로 진행됐다.

올해 캠페인에는 개인을 비롯해

4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2만 2775kg의 쌀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해 기부량(2만1483kg)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기부 받은 쌀은 도내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하는 4000여 가구에 6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쌀 기부 캠페인은 지난 2021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6년간 쌀 122t을 모아 취약계층 2만여 가구에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식 기록 없는 ‘위기 신호’... 도의회 점검

도내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 시도 사건 논란에

도의회, 오는 24일 교육청 등 현안 보고 받기로

속보=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건(본보 12·13일자 4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사건 당시 교육 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제주도의회가 점검에 나선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일과 관련해 “가장 교육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앞서 교육위는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 사건은 올해 4월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의 부모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지난 6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남은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없었고, 학교폭력 이후 학생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현안 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사안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현안을 보고 받을 것”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심히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이번 일과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고의숙 도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추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모교 출신)



강충룡



고석준



김경애



김덕홍



김승준



박왕철



박호형



이경심



이남근



임정은



장정훈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고두산

· 직전회장: 신진성 · 상임부회장: 박호형 · 감사: 김윤숙, 임희진 · 자문위원: 이희봉, 부평국, 송태석, 양창훈, 신진성, 고창우, 윤상택, 김용국, 한영진

· 부회장: 강기봉, 강성민, 강승환, 고영림, 김명란, 김종환, 김현철, 박진호, 백상훈, 부현철, 서영삼, 신동엽, 양동우, 양용호

· 이사회: 김대준, 김명진, 김보형, 김봉정, 김성관, 김주희, 김형철(토목), 김형철, 송상민, 송희진, 안영오, 양창배, 오진미, 임용주, 장윤경, 채용원 · 사무처장: 염권철 · 간사: 이우진